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3.10원 하락한 1,501.20원에 마감

27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.40원 상승한 1,506.7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에 하락 압력 받으며 전일대비 3.10원 하락한 1,501.2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 장중 변동 폭은 8.8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0.89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증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506.70	1506.70	1497.90	1501.20	1501.60
엔화	944.15	946.17	936.79	940.89	-	
유로화	1749.18	1753.38	1737.33	1744.87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15	-3.19	-7.6
결제환율(수입)	-0.06	-1.96	-5.48	-11.9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금통위 경계감에...1,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2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501.20) 대비 0.65원 상승한 1,500.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중동 불확실성 및 달러 강세에도 금통위 경계감에 제한적 하락 또는 보험권 등락 전망한다. 간밤 호르무즈 해협 봉쇄, 이란 제재 완화 등 이슈에서 여전히 미-이란 간 의견 차이를 보임에 따라 협상 낙관론에 일부 균열이 있었고, 이에 달러화가 강세 기조를 보였다. 그럼에도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점은 위험선호 심리 지속에 따른 원화 가치 지지 및 금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여기에 금일 예정된 5월 금통위에서 매파적 동결이 예상되는 점도 원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나, 신임 총재의 환율 관련 경계성 코멘트 수위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. 다만,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금일 밤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은 달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, 저점 인식에 따른 수입업체 결제수요는 환율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95.80 ~ 1506.40 원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2492.8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.65원 ↑
	■ 美 다우지수 : 50644.28, +182.6p(+0.3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57.61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8038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